부처님 찬탄하는 '노래쟁이'

불교명상가수 김무한 20년 만에 신곡



김무한 '심우도 송' 음반 표지

싱글음원 '심우도 송' 5월 10일 발매

노래 · 작곡 · 편곡 · 연주 · 프로듀싱

'심우도' 과정 그린 가사의 명상음악


30년 넘게 부처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있는 불교명상 가수 김무한 씨.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우거진 수풀 헤치고 소를 찾아 나서니 물은 깊고 산 험하여 길을 더욱 멀어라. 고달픈 몸 마음 지쳐도 찾을 길은 없는데 나뭇가지에 앉은 매미 애처롭게 울고 있네 … ♬"

불교 명상가수 김무한이 신곡 '심우도 송'을 발표했다. 1996년 1집 정규 앨범 '마음으로 가는 길(12곡)'과 1999년 2집 정규앨범 '다시 부르는 찬불가(12곡)' 이후 20년만이다. 5월 3일 BBS '마가 스님의 그래도 괜찮아' 프로그램을 통해 첫 전파를 탄 신곡 음원은 5월 10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정식으로 발매됐다.

'심우도 송'은 약 7분짜리 싱글 음원으로 김무한이 노래 · 작곡 · 편곡 · 연주 · 프로듀싱했다. 불교의 '심우도(십우도)'를 노래로 옮긴 것으로, '심우(尋牛)'로 시작해 '입전수수(入廛垂手)'로 끝나는 심우도의 내용을 가사로 하고 있다. 대중가요처럼 듣기 편한 포크송 느낌과 잔잔한 명상음악의 느낌에 김무한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조화를 이룬다. 심우도가 본성 회복의 길을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하여 그린 10편의 그림이라면, 김무한의 심우도 송은 역시 불성을 찾아가는 길을 10편의 가사로 이어 부르는 한 편의 노래다. 심우도 한 편을 '노래'로 듣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심우도'를 음악(노래)으로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불교공부를 하면서 심우도가 공부하는 사람들에겐 정말 좋은 텍스트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대중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좋은 텍스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함께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는 사찰의 벽화나 경전 등에서만 접해왔던 심우도를 다른 방법(음악)을 통해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음악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몇몇 분들과 음악 작업을 했는데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청력을 잃었고 천식까지 깊어져 호흡기 없이는 숨 쉬는 것도 어렵게 됐어요. 생각 끝에 지리산으로 들어가 죽을힘을 다해 병마와 싸웠어요. 어느 날부턴가 서서히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했어요. 몸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깊은 곳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다시 나를 찾은 나의 하루하루가 심우도였어요. 차일피일 미뤄왔던 노래를 완성하게 됐어요. 모든 게 시절인연인 것 같아요."

김무환의 심우도 송은 그렇게 세상으로 나오게 됐다. 김무한은 30년 넘게 부처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있는 불교명상 가수다. 그의 음악을 비롯한 김무한의 모든 언어 속에는 그 무엇보다 '불교'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는 1986년부터 2005년까지 파주, 문산, 홍천에 위치한 육군신병 교육대, 특공대, 수색대, 전차부대 등의 군법당과 서울, 영등포, 군산 교도소와 소년원 등을 돌며 불교 명상의 노래 순회공연을 해왔다. 1996년 가을에는 '김무한의 불음가요 축제'에서 최초로 불보살님들의 무트라(手印)를 명상 음악과 함께 발표 했다. 2006년부터는 7년간 임산모를 대상으로 태교음악회도 80회 이상 열었다. 2003년 가을에 시작한 인터넷(daum)팬 카페 모임, 김무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최로 김무한과 함께하는 명상의 노래여행 '마음 콘서트'는 11년째 계속 되고 있다.

"섬세한 부처님 말씀을 노래로 / 덧없이 흐르는 게 세월이라 구름처럼 흘러흘러 나는 지금 어디메뇨 / 마음의 님을 찾아 / 얽히고 설키었던 인연타래 / 한올한올 풀다 겨워 돌아보니 / 머문 자리 무상초 홀로피어 …"

김무한은 정식으로 1집 음반을 내기 전인 1990년대 초 '무상초'라는 곡으로 처음 대중 앞에 섰다. 그 후 사찰공연에서 그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노랫말에 감화를 받은 스님의 소개로 교도소 공연을 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30년 넘게 교도소 공연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남부교도소 합창단을 대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며 화음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김무한은 교도소, 군법당, 지역 사찰 등 자신을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찬불가, 샹송, 팝송, 등 장르 구분 없이 노래로 대중과 함께하고 함께 위로받는다. 특히 그는 거의 매주말마다 전국의 군법당을 찾는다.

이렇듯 김무한의 삶에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다. 음악, 불교, 전법과 이타행이다. 그가 평생 해온 일이다. 그런 김무한의 키워드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 음악은 유년기 시절의 유일한 위로였던 파도소리에서 시작됐다. 그는 조금 남다른 유년기를 보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일찍 다른 세상으로 떠나보냈다. 일찍이 '홀로'였던 그의 곁에 있어준 것은 바닷가 고향의 파도소리였다. 그리고 그런 그의 삶은 당연히 일찍부터 힘겨웠다. 현실에서의 부침이 마음을 어렵게 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늘 외롭고 힘겨웠던 그에게 음악은 유일한 위로였다. 어릴 적 들었던 파도소리의 기억이 그를 노래하게 했다. 음악이 김무한에게 '쉴 수 있는 곳'이었다면 불교는 그에게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 힘겨운 삶 속에서 우연히 만난 불법(佛法)은 힘겨움 속에서 품었던 많은 질문들의 '답'이었다. 그의 음악 속에 불교가 있는 이유다.

힘겨움 속에 있는 이가 힘겨운 이의 어려움을 알 수 있듯이 김무한은 자신의 힘겨운 삶 속에서도 힘겨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았다. 김무한이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노래를 들고 대중을 찾아 불법을 전해야 했던 이유다.

"옛사람들이 만들어 준 발자취를 따라 제가 살아왔듯이 누군가를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률에 담아 노래하고 있는 저는 부처님을 사랑하는 노래쟁이입니다."

김무한은 지금 지리산에 산다. 그는 내일 또 산 아래 대중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의 노래가 오래 오래 들려오길 바란다.

전각으로 만나는 〈금강경〉

조성주 '붓다에 바치는 금강경 전각' 展



고려시대 전통 감지 위에 〈금강경〉 순금 탁인.

한국기네스북에 등재된 조성주 작가의 '전각 금강경'이 등재 25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된다. 조 작가의 '전각 금강경' 소장처인 이천 청정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국미술관 2층에서 화해와 치유를 기원하는 '붓다에 바치는 금강경 전각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서예가이자 전각가인 조 작가의 '전각 금강경'은 1151개의 옥돌에 〈금강경〉 전문 5400자를 갑골문과 소전 등 다양한 전서 서풍으로 새긴 전각 작품으로 1997년에 20폭 병풍으로 완성됐다. 1986년 시작해 11년에 걸쳐 완성된 조 작가의 '전각 금강경'은 서예계는 물론 불교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그해 한국기네스북에 등재됐다. 그리고 1997년 예술의전당에서 전시된 후 2020년 6월 28일 이천 청정사에 기증됐다.

이번 전시에는 인장에 새긴 20폭 병풍과 1151개의 전각석, 고려시대 전통 감지 위에 순금으로 새긴 금강경 탁인(拓印, 40m), 순금 사경 작품(40m)이 전시된다. 40m짜리 탁인은 조 작가도 전체를 펼쳐보지 못한 대형 작품으로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서울 한국미술관 5월12일부터 25일까지

한국기네스북 등재 25주년 기획 특별전

서예가라면 한 번쯤 꼭 써보고 싶어 하는 〈금강경〉은 반야지혜의 법문을 설한 경전으로 현장(玄奘)이 번역한 〈대반야경〉 600권 가운데 577권에 들어있는 경이다. 석존이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서 수보리 존자 등을 위하여 인식의 세계 등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무자성 · 공이며 무아임을 설한 경으로, 대승경전의 진수가 담긴 경전이다. 선종에서는 육조혜능이 이 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이라는 구절에서 대오했다고 하여 소의경전으로 중요시해왔다.

전시를 마련한 청정사 주지 현중 스님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중에게 금강세계의 인연으로 희망을 주고 금생의 소원을 이루고자 전시를 준비했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마가 스님, 활안 스님, 동봉 스님 등 선지식의 법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02)573-7601. 박재완 기자